

2012년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워크숍 개최

한·중 FTA협상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계열화사업법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져



우리협회는 지난 3월 21일(수), 전남 영암군 소재 영암축협 한우프라자에서 광주·전남도지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오리 사육 규모 49.4%를 차지하는 광주·전남도지역의 오리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오리업 종사자로서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오리업계의 가장 큰 위기사항 중 하나인 한중 FTA협상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날 워크숍에는 건국대 김정주교수의 '한·

중 FTA협상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축산계열화법의 이해 및 미국사례 설명',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권두석 계장의 '전라남도 축산업 및 오리산업 정책방향'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이강현 전무의 '2012년 오리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교육의 문을 연 김정주교수의 '한·중 FTA협상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연구발표는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어 최근 사육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정

확한 의미와 그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과 함께 미국 등 타국가의 계열화 사업 사례도 함께 설명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권두석 계장 역시 이날 강의를 FTA 대비 오리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한·미 FTA의 주요 협의 내용과 주요 축종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시장개방화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되짚어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취시켰다. 이어 전남의 축산 여건과 현재 전남도 축산업 강화 대책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축산제도와 시책에 대한 강의로 축산농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우리 협회 이강현 전무는 '오리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사업계획'을 설명, 회원들에게 오리업계의 현안을 알리고 올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및 오리업계 내 외적 개선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 및 기관 등에 건의 및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오리업 종사자들이 국내 오리산업 및 협회 사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국과의 FTA협상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축산물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종이 오리품목임에도 산업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위험

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협회는 국내 오리산업의 집산지인 광주·전남도지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김정주교수의 강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중 FTA체결이 국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알기 쉽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권두석계장의 강의

게 상세히 안내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2월 22일 새로 제정공포된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어려운 법령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나아가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앞서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 실정과 다른 점, 개선해야 할 점 등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협회는 앞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 지회별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지회 결속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앞서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으며, 전임 정정우 지회장에 대한 노고치하와 신임 마광하 지회장의 오리산업과 협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임인사가 있었다.



이강현 전무의 협회 주요사업설명